

선배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대입 실패한다' 슬럼프? 이제는 닥공할 시기!

수능까지 90일, 남은 석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입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시기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공부하는 자만이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중론. 선배들이 조언하는 경험담에 귀 기울이면 대입 실패를 막는 노하우를 찾을 수 있다.

취재 조진경 리포터 jinjing87@naver.com 도움말 유경모(한국외대 영어중국어과 4학년, 본지 공신) 정재원(이주대 기계공학과 3학년, 본지 공신) · 정도원(연세대 교육학과 2학년) · 이준형(중앙대 의과대학 1학년)

01 팔랑귀는 금물!

주변에 난무하는 정보에 현혹되지 마라

이맘때는 매체를 통해 정보가 쏟아진다. '수능 100일 전에 이진 필수다' '9월 모의평가 전에 이것만은 꼭 하라' '지금부터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식의 조언이 그것.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 수학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과목도 골고루 훑어 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신이 선택한 공부 방법을 믿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자기 페이스를 뒤집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불안해서 친구나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에 의지한다. 한국외대 영어중국어과 4학년 유경모씨는 "3학년 초에 설정한 계획을 순서대로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고3 학생은 수능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매진하고, 재수생은 갑자기 학습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에 좋다"고 조언한다. 연세대 교육학과 2학년 정도원씨도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편차가 심한데, 다른 사람이 좋다는 방법에 얽매어다 보면 자기 페이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변 정보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보완하는 정도가 알맞다"고 덧붙였다.

02 이 정도면 됐다?

자기 실력 맹신은 실패의 지름길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100등 안에 들고 전체에서 2~3문제 틀리는 학생들이 대입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만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모의고사와 엄연히 다르다. 긴장감도 몇 배는 더하다.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수능에서 변수가 있으니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공부해야 성공한다. 중앙대 의과대학 1학년 이준형씨는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점수가 전혀 상관없다고 말은 못 하지만 똑같다고도 볼 수 없다. 나는 수능을 두 번 봤는데, 모두 수능 바로 전 모의고사 점수와 다르게 나왔다. 모의고사는 참고만 하고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자만과 자신감은 어떻게 다를까.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 베이스는 같다. 평소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자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수능도 잘 볼 수 있다'고 방심해서 오답 분석도 하지 않는다. 이런 학생은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수시 지원 원칙도 지키지 않고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 학과만 지원한다. 내 이야기다. 고3 때는 자만해서 실패했고, 재수생 때는 자신감 있지만 성적을 비관적으로 보고 지원했다. 지원 학교도 적절하게 배분했고 결국 안정권 대학에 합격했다." 도환씨의 설명이다.

03 이제 와서 학습 동기부여?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슬럼프가 올 때가 되었다. 주변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동기부여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이다. 자신이 습관적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왜 공부하기 싫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 동기부여가 필요해" 핑계를 대는 것. '왜 공부해야 하는가' 같은 유명 강사 동영상을 찾아보는 학생도 상당수다. 동기부여는 공부 습관을 들이는 중3이나 고1 때는 필요하지만, 수능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 낭비다. 수능을 석 달 앞둔 고3이 해야 하는 건 공부밖에 없다. 선배들은 꾸준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수험생이 할 일이라고 조언한다. 굳이 동기부여 하고 싶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뭘 잃을까' 생각해보자. '1년 더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 '대학에 떨어져 친구들과 담을 쌓을 수도 있다' 등 현실적인 예측을 해본다.

04 쉬운 길로 돌아간다?

공부, 어렵게 하라!

이주대 기계공학과 3학년 정재원씨는 "이 시기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표한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조금 쉬운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많은 시점"이라며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끝도 없이 타협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재수를 하는 김지은(가명·20)씨는 전형을 갑자기 바꿔 실패한 사례. "작년 여름 일반 전형을 준비하다가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입학사정관제와 특기자 전형을 함께 준비했다. 자기소개서와 특기자 전형에 필요한 공인 어학 성적을 준비하다 보니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결과는 낙방. 특기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췄다. 전형을 갑자기 바꾸고 우왕좌왕한 점이 후회된다. 올해는 일반 전형 하나만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 경모씨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도 안 나오고 빨리 대입을 끝내고 싶어 편하게 가지는 생각에 준비하던 전형을 바꾸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적다"고 지적했다. 적성 고사 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모르지만 좁은 문에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드니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반면 눈술 전형과 정시는 준비 과정은 힘들지만 선택의 문이 더 넓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05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간다?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착각

적지 않은 고3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한다. 1년 더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선배들은 그건 '착각'이라고 말한다. 도환씨는 "재수할 때 학원에서 상담하면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말했는데 결과를 보니 목표를 이룬 학생은 48명 중 정확히 3명이었다. 16분의 1의 확률이다. 고3 학생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모씨는 더 비관적으로 본다. "재수하면 성공한다?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엔 성적이 그대로인 학생들이 60% 정도고, 20%는 하락한다. 대박 나는 학생들은 10%에 불과하다." 많은 고3 학생들이 유명 재수 학원에서 광고하는 명문대 합격생 수에 현혹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만 명 가운데 200~300명일 뿐, 떨어지는 학생이 수두룩하다는 말이다. 경모씨는 "고3은 마지막까지 초고속으로 달려라. 고3 때 흐지부지 공부하면 재수하더라도 작년 사이클이 반복돼 1년 뒤 똑같은 상태로 수능 100일 전을 맞이할 수 있다. 고3 때 열심히 해두면 재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공부 습관이 남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